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3주일

제35권 15호(나혜) 2015년 3월8일

[묵사]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들,
그 속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온갖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성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올바른 정성과 믿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알아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그들이 모여 주님을 찬미할 때
성전은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평화 가득한 마음,
믿음 가득한 마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요,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화 (장래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최병위
	(생)박현주 카타리나, 케네스 한 바오로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김복순 막달레나, 송중복 & 양옥분 잼마, 변혜경 올리안나, 이용식 베드로, 권분남 콜롬바, 이필주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현시영 요셉, 이석진 가브리엘, 이병중, 김영수 테레사, 안영희 마리아, 윤완구, 성재명 요셉, 박영성&박영근&박준호&염옥화
	(생)서성용 베드로, 이영희 가타리나 & 오일순 헬레나, 정잼마 & 정클라라 & 정세라피나 & 정에릭, 박현주 카타리나, 박소영 프란체스카 & 막브렌든 안토니오, 조화숙 안젤라와 그 자녀들, 오마우라 수녀&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20,1-17<또는 20,1-3.7-8.12-17>

회답송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 꿀보다 더욱 달다네.○

제 2독서 1코린도 (Corinthians) 1,22-25

복 음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 음 요한(John) 2,13-25

영성제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7	154	157
봉헌	401	268	259
성체	356	292	289
파견	151	158	158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선택

제4장

은사의 식별

1. 식별 은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2베드 2,1). 티모테오 서간의 저자도 거짓 영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1티모 4,1). 바오로 사도는 악령이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당부한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2코린 11,14-15). 이렇게 거짓 영을 참된 영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분별을 강조한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한편으로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우리가 받은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볼 것을 당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1요한 4,1). 실상 악의 세력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인간을 간교하게 유혹하여 죄로 이끌었다(창세 3,1-7 참조). 그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현혹시키면서 그릇된 길로 유도한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악의 세력과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권고한다. “암흑의 세력에 대한 힘든 투쟁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 투쟁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투쟁에 뛰어드는 인간은 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계속>

거룩한 열정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던 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서운 모습으로 돌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앞뜰에서는 희생 제물로 쓸 동물들을 가져다 놓고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위한 환전상들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둘러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요한 2,16)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거친’ 행동은 우발적인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극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경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보다는 돈에 마음이 쏠려서 성전과 희생 제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1티모 6,5)을 나무라시면서, 그들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서 일종의 ‘쇼크 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며 죽일 궁리까지 합니다.(루카 19,47-48 참조)

예수님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루카 16,13)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느님을 믿으려면 무조건 가난뱅이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뜻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며 하느님마저도 제쳐놓는 오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하느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영이 거하시고, 따라서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1코린3,16 참조)

우리의 내면에서 돈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도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탐욕이라는 불순물을 태워버려 깨끗한 마음과 굳건한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가 십계명에 따라(제1독서)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제2독서) 그분의 뒤를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니다. 과거 한국의 순교자들은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신앙인들에게서도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세지는 물욕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롯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손희송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운수 좋은 날

입이 찻 벌어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고,
줄줄이 일이 잘 풀릴 때가 운이 좋은 때가 아니란 걸
겪어내기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좋은 때라는 걸,
어제처럼 심심한 오늘이야말로 정말이지
운이 아주 좋은 날이란 걸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서정우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금자 데레사	전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자벳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월13,20,27일,4월 3일)

사순3주간 금요일: 요셉회

사순4주간 금요일: 양업회

사순5주간 금요일: 대건회

성 금요일 (오후 3시):안나회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26일(목요일)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부활절 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미사 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3월18일(수),19일(목), 24일(화)아침미사(오전 8시30분)

◆ 사순 특강 I, II

강사 : 김태현 성우 안토니오 신부(성 그레고리 성당)

● 특강 I

● 주제 : 부활과 회개의 의미와 기도하기

● 일시 : 3월10일(화요일) 오후 7시30분 저녁 미사후, 성전

● 특강 II

● 주제 : 죄,변화, 행복

● 일시 : 3월17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저녁 미사후, 성전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4월5일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 3월22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 요셉회 모임안내

● 일시 : 3월15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3월 13일 금요일은 요셉 회가 준비한 십자가의길 기도가 저녁 7:30분 미사 후 있습니다. 많은 요셉 회원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5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3월8일 ~ 4월 30일

● 환영식 : 2015. 5월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7일 ~ 12월10일, 매주 목요일 8:10 ~ 9:10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8일(주일) * 토동2,3반 : 소고기 우거지국밥(\$3)

* 주일학교 : 햄&치즈 샌드위치 (4학년)

● 3월15일(주일) *토남3반 : 짜장밥(\$3)

* 주일학교 : 베이컨 도그 (3학년,킨더)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태홍 구자운 김 준 김 명 김 옥 김광일 김교복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원모 김윤진 김인성 김일선 김정선 김정희 김정희 김종렬 김주량 김현숙 김효진 나경흠 남명자 남성철 박씨니 박정자 박정희 박종열 반정이 변정선 성미선 송영미 송재훈 송호창 오상준 오일순 유경자 윤화경 이경태 이근모 이민상 이영희 이은록 이주영 이태옥 장영진 전정일 전전자 정동호 정혜영 주대중 주재옥 최기남 최미열 최수복 최원석 최이원 최재은 최태훈 한장환 홍광선 영희가보라	강태홍 구자운 김 준 김 옥 김광일 김교복 김선제 김양금 김원모 김정희 김주량 김현숙 김효진 나경흠 남명자 남성철 박씨니 박정희 변정선 성미선 송호창 유경자 윤화경 이경태 이근모 이민상 이영희 이은록 장영진 정동호 정혜영 주대중 최기남 최미열 최원석 최이원 최재은 최태훈 한장환 홍광선 영희가보라
합계:\$6,875	합계 : \$3,535
주일미사 헌금 : \$2,472	성물부 수익금 : \$953.55
2차헌금:\$638	주보광고 : \$250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24일 (금) - 7월26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환불 불가능**)
- 신청마감: 4월12일까지 등록한 학생들만 참석 가능함.
본당 주최 행사가 아니므로 이후 등록은 불가능함
- 문의: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마르코 복음 (Mark), 노트 제공 (2월 8일)
- 대상: 주일학교 모든 학생
- 필사 마감: 3월 29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 대 축일 미사 중 (4월5일)
*시상은 전권을 필사한 아이들에게만 한함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스케줄

초등부

March 8: 4th grade

March 15: 5th grade

March 22: 6th grade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등은 물론 냉난방 기기를 반드시 꺼주세요. 각 방의 창문을 사용한 후에는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 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의 관심있는 손길을 타야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현관문+바깥Gate)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타성당 판공성사일정

- 3월10일 : 평화의모후성당
- 3월12일 : 성 요셉 성당
- 3월17일 : 성마태오성당
- 3월18일 : 순교자성당
- 3월19일 : 성 아그네스 성당, 성 프란치스코 성당
- 3월23일 : 성 토마스 성당
- 3월24일 : 성 바실 성당
- 3월27일 : 성삼 성당

소공동체 부 장 김명제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신현화 헬레나 991-4838 3/4(수) 오후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701-6343 3/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6(금) 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21(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심재은 클레멘스 991-8558 3/14 (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3/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현석주 아오스딩 625-3312 3/21(토)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3/13(금) 오전11시 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희연 루시아 818-6903 3/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박정희마리아 404-1607 3/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8 (일)오후 6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미나 213-700-6983	‘십자가의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경주 요아킴 522-2933 3/14(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십자가의길’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377-6752 3/10(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 요셉회	오후1시
-------------	------

124위 시복 특집< 22 > 부부

정광수 바르나바(?~1801)

윤운혜 루치아(?~1801)

...저는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졌고, 주문모 신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또 천주교 성물을 만들어 곳곳에 배포하였고, 교우들과 함께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였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형조에서 한 정광수의 최후 진술 중에서)

정광수 바르나바는 경기도 여주 부곡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천주교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1791년 권일신에게 교리를 배운 뒤 세례를 받고 신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정광수는 양근에 살던 윤운혜 루치아와 결혼하였는데, 윤운혜는 윤유일의 사촌 동생으로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광수의 부모가 신자가 아니었으므로 정광수와 윤운혜 두 사람이 교회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지만, 조상 제사에 대한 부모의 강요와 마을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 1799년 한양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후 정광수 부부는 홍필주, 강완숙, 정복혜 등과 교류하면서 본격적인 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 마당 한편에 따로 집회소를 마련하여 신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자주 주신부를 모시고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성물이나 교리서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상당한 학식을 지니고 있던 정광수는 교회 서적을 베껴 신자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 윤운혜와 함께 예수님과 성모님의 상본이나 묵주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가까운 교우들과 함께 교리를 연구하거나 기도모임을 갖곤 하였습니다. 1801년 박해가 일어나 언니 윤점혜 아가타가 체포되자, 이들 부부도 머지않아 자신들이 체포될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사학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정광수에게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윤운혜는 남편을 피신시킨 다음 교회 서적과 성물 등을 다른 교우의 집에 숨겨 놓았습니다. 혼자 남아 집을 지키던 윤운혜는 1801년 2월 급습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가 배교를 강요당하며 심문 받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며 굴복할 줄 모르던 윤운혜는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고, 5월 14일 서소문 밖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정광수는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이리저리 피신하던 중이었는데, 포졸들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더 이상의 피신을 단념한 채 스스로 그들 앞에 나아가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정광수는 여러 차례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무수한 곤장을 맞았지만 끝내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형조로 이송되어 사형판결을 받고 1802년 1월 30일, 고향 여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위임

다문화의 역설

[문화의 복음자리]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주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장하다고 여긴다. 민족을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소수 인종이며 비주류 민족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자신들의 음식을 지켜내고, 자식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며,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심지어 고국에서 성직자까지 영입하여 한국식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자랑스럽고 그들에게 심어져 있는 우리 민족 문화의 끈질김이 무척이나 고맙기도 하다.

한국으로 이민 와서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민족의 말을 사용하며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다문화 식구들을 보면 우리는 답답하다고 여긴다. 여전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는 다문화 식구들을 보면 우리는 강한 이질감을 느낀다. 만일 어떤 다문화 식구들이 한국 내에서 살아 가면서 소수 인종이며 비주류 민족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자신들의 음식을 지켜내고,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며, 고국의식구들을 그리워하며, 심지어 고국에서 자신의 종교까지 들여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남으로 여겨버릴 것이다.

이것이 다문화의 역설이다.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은 “용광로(melting pot)”나 “샐러드 그릇(salad bowl)”으로 표현되는 두 형태가 있다. 전자는 고유한 다양성을 모두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고, 후자는 이민자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맛(문화)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대개의 이민 정책은 위 두 정책의 어느 중간쯤 한 지점이 될 터인데, 한국의 상황은 아직 사회논의 자체가 없고, 그 논의를 담아낼 철학적, 문화적 그릇도 없는 것 같다.

*질문 :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김상효 신부/신선성당 주임

[기도묵상]

기도란 친구와의 대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자주, 그리고 기꺼이 혼자서 그를 만납니다.

- 예수의 성녀 테레사 -